

아시아 최대의 사진축제 서울포토2010

국내외 22개 사진전문 갤러리 참여



며, 'PHOTONET Review' 섹션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작가 40여 명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소개됐다. 'RAWVISION, 예술과 경영의 상호(相互) 고리들-한국 CEO 특별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서울포토>는 2008년 프레 행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최초로 사진 전문 전시회로 <서울포토>에 자극받은 <도쿄포토>, <포토베이징>, <포토타이페이>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서울포토>가 아시아 사진 시장의 중심점이 되어 가고 있다.

모리무라 야스마사 특별전 한국 최초로 열려

<서울포토 2010>에는 일본 사진 전문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했다. 'Beyond the Award' 섹션을 통해 일본 사진 작가 40여 명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Invitation Artist' 섹션에서는 일본의 대표 작가인 '모리무라 야스마사 (Morimura Yasumas)'의 특별전이 한국 최초 대규모로 열렸다.

모리무라 야스마사는 1951년 일본 오사카 생으로 교토시립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했다. 회화, 판화, 흑백 사진 등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다가 1983년 고훈의 자화상을 소재로

코엑스가 주최하고 포토넷이 주관한 <서울포토 2010>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2개 갤러리와 220여 명(갤러리 참여 작가 포함)이 참여해 1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The Galleries' 섹션에서는 사진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외의 22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소속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였으

한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으로 유명해지게 된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셀프 포트레이트 표현을 통한 작품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진 작업 외에 영화와 연극, 퍼포먼스 등에 참가하는 등 작품 제작의 노하우를 살려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서울포토 2010>에는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1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1 주빈국 스페인전증 헤라르도의 작품
 2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작품
 3 한국CEO특별전증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작품
 4 갤러리룩스의 구성연씨 작품
 5 갤러리아우의 이정진씨 작품

The Galleries, 국내외 22개 갤러리 참여

The Galleries에는 사진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외 22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참여한 갤러리는 구름수 갤러리, 국제 갤러리, 굿이미지 갤러리, 갤러리 나우, 로프트 디, 갤러리 룩스, 봄 갤러리, KT&G 상상마당, 갤러리 아이, 아라리오 갤러리, 아트앤드림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갤러리 진선, 한국미술센터(이상 한국), BLITZ Gallery, EMON PHOTO GALLERY, Gallery at the HYATT Project, MEM, Port Gallery T, Yokoi Fine Art, Zeit-Foto Salon(이상 일본), Galeria Saro Leon(이상 스페인) 등이다.

주빈국 스페인 특별 사진전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서울포토 2010>의 주빈국은 스페인이다. 'Guest of Honor' 섹션에서는 영미권과 독일권에 치우친 한국 사진계의 좁은 시야를 넓히고,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스페인 사진을 소개했다. 체마 마도즈(Chema Madoz), 다비드 히메네스(David Jimenez), 후안 마누엘 카스트로 프리에토(Juan Manuel Castro Prieto)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기획자인 알레한드로 카스테요테(Alejandro Castellote)는 마드리드의 국제 사진 페스티벌 포토에스파냐의 설립자이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동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아서 지휘했다. 그의 사진과 관련하여 출판과 기획뿐만 아니라 사진 비평가, 교육자, 저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파리의 케브랑리 미술관의 사진 비엔날레 포토케의 게스트 큐레이터, 구에초포토 페스티벌의 큐레이터, 마드리드의 사진 학교 EFTT에서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AWVISION, 예술과 경영의 상호 영감의 고리들 - 한국 CEO 특별 사진전

한국 CEO 특별 사진전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유상욱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이방희 삼익가구 대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한용의 삼성생명 상담역 등이 참여했다.

이 전시에서는 예술적인 능력과 경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CEO로서 요구되는 통찰력은 예술의 상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전시에 참여한 CEO의 선정 기준은 첫째 작품성, 둘째 문화 예술 및 사회 공헌도, 셋째 경영 능력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CEO이다. ☞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